



엘리자베스 구즈만

31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저는 부담없는 건강보험이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확대가 올바른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확대적용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연방세금을 이용해서 건강보험뿐 아니라 교육과 교통에도 쓸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는 모든 버지니아인들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방치한다면, 질병 하나로 인해 대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은 우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왔고, 양육될 뿐입니다.

주/지역 경찰이 287g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민국단속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오. 지역 경찰은 범죄를 퇴치하고, 커뮤니티와 든든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민은 연방 관할이며, 따라서 훈련을 받은 연방요원들만이 이민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주민으로 이 문제에 관련, 실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경찰은 제 외모와 제 성씨에 근거해 저를 단속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87g조약은 인종차별적인 프로파일링을 조장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며 사람들 사이에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운전시험을 통과한 적절한 나이의 모든 개인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서류미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9/11 사건이후에 이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아이디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 납부가 증가하고, 도로가 더 안전해집니다. 또한 모든 운전자의 운전기록을 남겨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즈만

31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협조적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을 경찰의 상시적인 이민신분 확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예. 사법체계에서 우리는 범죄자가 제대로 기소되고 법률에서 허락하는 한 최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자 증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강력범죄가 해결되기 힘들며, 우리 커뮤니티는 덜 안전해집니다.

버지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해야 할까요?

예. 가족의 필요와 식비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모든 버지니아인에게 생활적정선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모들이 자녀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노동자가, 그리고 경제가 좀더 탄탄해지며, 가족과 비즈니스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버지니아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노조결성 제한및 금지” 법을 폐지해야 할까요?

예. 이 법은 실제로는 “일을 덜할 권리”를 보장할 뿐이며 매일 열심히 일하는 버지니아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원으로써 저는 이 “노조결성 제한 법”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재의 직장상해보험 재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소득세 과세 적용대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예. 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산층과 빈곤층이 부유층을 위한 세금까지 부담한다면 국가재정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리치몬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유층과 특권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부담을 중산층과 그 밑으로 부가시키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버지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청소년들이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직업을 구하고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직업을 구하고 원한다면 대학교육을 추구할 수 있게 돕는 길입니다.





엘리자베스 구즈만

31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이 있고, 버지니아 주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거주민 누구든지 여기서 고등교육을 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에 계속 살면서 직업을 얻고 우리 경제에 공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학생들이 경제부담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주 의회 산하 코커스를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대학 교육 학비지원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좀더 많은 공립대학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학자금 용자로 인한 부채가 덜한 졸업생이 더 많아지고, 졸업후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직장을 얻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주 정부문서를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계적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주의 행정가들과 협력해서 어떤 그룹이 요청하던지 언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구성이 더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 주 정부로부터 이런 변화를 정책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먼저 버지니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부터 정부 문서가 번역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15년의 경력이 있는 공공행정가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일해본 경험을 적극 활용, 주 정부 책임자들과 일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아무 이유없이도 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버지니아 전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투표제 실시는 물론, 투표소도 추가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오랜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버지니아에서 정당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선거구재조정을 찬성합니다.

*사진은 후보 페이스북에서 전제

